

인문 논술

합격 답안 공식 AI 정리

48.07 : 1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44개교 평균 경쟁률

논술 경쟁률 역대 최고,
합격 답안은 공식대로 쓴다
주요 대학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대입 인문 논술 합격 답안 공식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44개교 평균 경쟁률 48.07 대 1.

제시문 독해 공식, 요약·비교·평가·자료 해석·대안 5대 유형 답안 공식,
새로 쓴 실전 논제 9세트와 예시 답안·채점 포인트, 시험장 운영법까지

7대 출제 공식

실전 논제 9세트

예시 답안 600~1,000자

채점 포인트·감점 요인

감점 TOP 10

시험장 시간 배분

CONTENTS

차례

PART 1 인문 논술 해부도	3
1. 논술전형 구조 — 모집·경쟁률·수능 최저·시험 형식	4
2. 채점은 이렇게 한다 — 채점 기준의 4요소	5
3. 인문 논술 기출을 관통하는 7대 출제 공식	6
PART 2 독해 공식	7
1. 제시문 독해 4단계 — 핵심어·논지·근거·한계	8
2. 제시문 사이의 관계 지도 그리기	9
3. 요약 공식 — 압축·재진술·재구성	10
PART 3 유형별 답안 공식	11
1. 요약형 — 논제 1	12
2. 비교·대조형 — 논제 2	14
3. 관점 적용·평가형 — 논제 3	16
4. 도표·자료 해석 결합형 — 논제 4	18
5. 대안 제시·설명형 — 논제 5	20
PART 4 실전 논제 + 개요	22
1. 분류·비교 통합형 (가)~(라) — 논제 6	23
2. 요약 + 비판 결합형 (가)~(다) — 논제 7	25
3. 관점 평가 + 자료 해석형 (가)~(라) — 논제 8	27
4. 문제 진단 + 대안 제시형 (가)~(다) — 논제 9	29
PART 5 마지막에 꼭 볼 것	30
1. 원고지·분량·문장 규칙	31
2. 채점자가 바로 깎는 감점 TOP 10	32
3. 시험장 운영법과 시간 배분	33
4. 대학별 출제 유형 경향 한눈에 보기	34
예시 답안 및 채점	35

인문 논술 기출을 관통하는 7대 출제 공식

공식 1. 제시문은 언제나 "대립 쌍"으로 짜인다

자유 ↔ 평등, 개인 ↔ 공동체, 이성 ↔ 감정, 보편 ↔ 상대, 효율 ↔ 공정, 진보 ↔ 성찰. 제시문이 4개여도 결국 두 진영으로 나뉘거나, 한 축의 양 끝과 중간에 놓입니다. **대립 축 하나를 찾으면** 제시문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공식 2. 첫 문항은 "요약·분류", 마지막 문항은 "평가·적용"

다문항 시험은 대부분 쉬운 독해(요약·분류·비교)에서 어려운 사고(평가·적용·대안)로 올라갑니다. 앞 문항의 답이 뒤 문항의 재료가 되므로, 첫 문항에서 정리한 논지를 다음 문항에서 그대로 끌어 씁니다.

공식 3. 논제의 동사가 답안의 구조를 정한다

"요약하시오" = 논지 + 근거 압축 / "비교하시오" = 기준 + 공통점·차이점 / "평가하시오" = 기준 제시 + 타당성과 한계 / "설명하시오" = 원리를 사례에 연결 / "논하시오" = 자기 입장 + 근거 + 반론 고려. **동사에** 밑줄부터 굵습니다.

공식 4. "~의 관점에서"는 제시문을 '렌즈'로 쓰라는 뜻

"(가)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라"는 (가)의 **핵심 원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나)의 주장이나 사례를 판정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면 논제 이탈입니다.

공식 5. 도표는 "추세 + 비교 + 예외" 세 가지만 읽는다

인문 논술의 도표는 계산 능력이 아니라 **제시문 논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로 씁니다. 가장 큰 변화(추세), 집단 간 차이(비교), 흐름을 거스르는 값(예외)을 수치와 함께 인용하고 제시문과 연결하면 됩니다.

공식 6. 숨은 전제가 곧 비판의 표적이다

평가·비판 문항의 채점 포인트는 대부분 제시문이 **당연하게 깔고 있는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다수의 이익은 합산할 수 있다"처럼 드러나지 않은 전제를 찾아 그 한계를 지적하면 상위권 답안이 됩니다.

공식 7. 대안은 "문제의 원인"에서 거꾸로 나온다

대안 제시 문항은 창의성보다 **정합성**을 봅니다. 제시문이 진단한 원인 A에 대응하는 대안 A'를 내야 합니다. 원인과 무관한 좋은 아이디어는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안의 **한계나 보완책**까지 한 문장 덧붙이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제시문 독해 4단계 — 핵심어·논지·근거·한계

제시문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글이 아니라 **표시하며 해체하는 글**입니다. 시험장에서 제시문당 3~5분 안에 아래 네 가지를 여백에 적어 두면, 어떤 논제가 나와도 답안 재료가 준비됩니다.

단계	찾는 것	표시법과 단서
① 핵심어	글 전체에서 반복되거나 정의되는 개념어 1~2개	네모 표시. "~란 ~이다", 따옴표, 반복어, 제목처럼 쓰인 명사
② 논지	핵심어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 한 문장	밑줄. "그러나", "따라서", "결국", "~해야 한다" 뒤 문장
③ 근거	논지를 받치는 이유·사례·비유	번호 표시. "왜냐하면", "예컨대", "~와 같이"
④ 한계	글이 말하지 않은 것, 숨은 전제	여백에 "?" 메모. "모든", "언제나", "당연히" 같은 단정 표현

시범 독해 — 짧은 제시문으로 4단계 적용하기

사람들은 흔히 기억을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로 여긴다. 필요할 때 문을 열고 저장된 장면을 꺼내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은 꺼낼 때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가깝다. 우리는 지난 일을 떠올릴 때 현재의 감정과 지식,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겪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재료로 장면을 다시 조립한다. 같은 졸업식을 기억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을 근거로 과거를 말할 때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4단계 메모 예시

- **핵심어:** 기억 (창고 ↔ 건물이라는 비유 대립)
- **논지:** 기억은 저장된 과거의 재생이 아니라, 떠올릴 때마다 현재의 관점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 **근거:** 현재의 감정·지식·타인과의 대화가 재료로 쓰임 / 같은 졸업식에 대한 두 친구의 기억 차이
- **한계(?):** 재구성된다면 기억은 전혀 믿을 수 없는가? 기록·증언과 교차 확인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은가?

독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비유를 논지로 착각** — "기억은 건물이다"는 논지가 아니라 논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답안에서는 비유를 풀어서 개념어로 바꿔 써야 합니다.
- **통념을 논지로 착각** — 첫 문장 "사람들은 흔히 ~라고 여긴다"는 글쓴이가 반박하려는 통념입니다. "그러나" 뒤가 논지입니다.
- **사례를 요약에 넣기** — 졸업식 사례는 근거일 뿐, 요약에서는 "개인의 기억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현상" 정도로 일반화합니다.

요약형 — 논제 1

요약형 답안 공식 — "통념 → 논지 → 근거 → 함의" 4블록

1. 첫 두 문장 안에 통념과 대비해 논지를 둡니다. 채점자는 첫 두 문장에서 핵심 파악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거는 2~3개로 묶어 일반화합니다. 사례 하나에 한 문장 이상 쓰지 않습니다.
3. 제시문에 반론·한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합니다. 자주 숨어 있는 채점 포인트입니다.
4. 분량은 제한의 90~100%. 요약은 짧을수록 좋은 글이 아니라, 정해진 분량에 핵심을 빠짐없이 담는 글입니다.

제시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상, 듣는 음악, 읽는 기사 가운데 상당수는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 추천받은 것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클릭했고, 어디서 오래 머물렀으며, 무엇을 건너뛰었는지를 기록해 다음에 보여 줄 것을 정한다. 그 결과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것을 손쉽게 만난다. 선택에 드는 시간과 수고가 줄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 편리함의 확대다.

그러나 편리함이 곧 자유의 확대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자유로운 선택이란 여러 가능성을 앞에 두고 그중 하나를 스스로의 이유에 따라 고르는 일이다. 그런데 추천 체계는 가능성의 목록을 미리 좁혀 놓는다. 우리가 고르는 것은 넓은 세계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남긴 흔적으로 만들어진 좁은 진열대 위의 상품이다. 진열대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고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없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선호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사람의 취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과 부딪히며 넓어지고 바뀐다. 처음에는 지루했던 음악이 몇 번 듣는 사이 좋아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추천 체계가 이미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것만 반복해 보여 주면, 이런 우연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다. 그렇게 굳어진 선호는 다시 알고리즘의 자료가 되어 진열대를 더 좁힌다. 나의 선택이 나를 가두는 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추천 기술을 버리자는 말은 아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걸러 주는 장치는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그 기준을 바꾸거나 끌 수 있어야 한다.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선택의 주인으로 남으려면, 기술이 우리 대신 고르는 범위를 우리가 다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1 [요약형 · 제한 시간 30분]

제시문의 논지와 그 근거를 600자 내외(540~660자)로 요약하시오. 단,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출제 의도 — 통념(추천 = 편리함의 확대)과 글쓴이의 문제 제기(편리함 ≠ 자유)를 구분하고, 두 단계의 근거(선택지의 축소 → 선호의 고착과 순환)를 논리 순서대로 재구성하는지, 마지막 문단의 '절충적 제안'까지 포함하는지를 평가한다.

답안 설계(개요)

1. **통념 + 논지**: 추천 알고리즘은 선택의 수고를 덜어 주지만, 편리함의 확대가 곧 선택의 자유 확대는 아니다.
2. **근거 ① 선택지의 축소**: 자유로운 선택의 정의(여러 가능성 중 스스로의 이유로) → 추천은 과거 이용 기록으로 가능성을 미리 좁힘 → 모르는 것은 고를 수 없음
3. **근거 ② 선호의 고착과 순환**: 취향은 낯선 것과의 만남으로 형성 → 비슷한 것만 반복 노출 → 우연한 만남 감소 → 굳은 선호가 다시 자료가 되는 순환
4. **함의(제안)**: 기술 폐기가 아니라, 추천 기준의 공개와 이용자의 조정·차단 권한으로 선택의 주체성 회복

도표·자료 해석 결합형 — 논제 4

자료 해석형 답안 공식 — "수치 → 의미 → 제시문 연결"

1. **수치 인용**: 변화 폭이 가장 큰 항목, 방향이 반대인 항목을 **숫자 그대로** 씁니다. "크게 줄었다"가 아니라 "32분에서 21분으로 약 3분의 1 줄었다".
2. **의미 해석**: 수치가 보여 주는 현상을 한 문장의 개념어로 바꿉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는 경험의 감소"
3. **제시문 연결**: 같은 수치가 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읽히는지 대비합니다. 자료는 중립이고, 해석은 관점에 따라 갈립니다.
4. **과잉 해석 금지**: 자료가 상관만 보여 줄 때 "때문이다"라고 인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 긴 글을 읽는 일은 단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다. 문장을 따라가며 앞의 내용을 붙잡고, 낯선 논리를 끝까지 견디는 동안 우리의 주의력은 단련된다. 깊이 읽기는 타인의 생각 안으로 오래 들어가 머무는 훈련이며, 이 훈련이 쌓여야 스스로 복잡한 생각을 세울 수 있다. 몇 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바뀌는 화면에 익숙해진 뇌는 느리게 펼쳐지는 글을 지루하다고 느끼고, 결국 깊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나) 읽기의 방식은 언제나 매체와 함께 변해 왔다. 두루마리에서 책으로, 책에서 화면으로 옮겨 오면서 사람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읽기 능력을 길렀다. 오늘의 독자는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대신,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빠르게 훑고 비교하며 필요한 것을 엮어 낸다. 이것을 읽기의 쇠퇴로만 볼 수는 없다. 흠어진 정보를 연결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 역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해력이다.

(다) 청소년(만 13~18세) 읽기·매체 이용 실태 — 학습용 가상 자료

항목	2020년	2025년
하루 평균 책 읽기 시간 (종이책·전자책)	32분	21분
하루 평균 짧은 영상(1분 이하) 시청 시간	41분	94분
최근 1개월 내 3,000자 이상 글을 끝까지 읽은 경험 '있음'	68%	47%
최근 1개월 내 한 주제를 3개 이상 출처에서 비교·검색한 경험 '있음'	39%	61%

논제 4 [도표·자료 해석 결합형 · 제한 시간 35분]

(다)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해석하시오. (700자 내외, 630~770자)

출제 의도 — 네 항목 중 감소하는 두 항목(책 읽기, 긴 글 완독)과 증가하는 두 항목(짧은 영상, 다중 출처 비교)을 구분해 수치로 제시하는지, 같은 자료가 (가)에서는 '깊이 읽기의 약화'로, (나)에서는 '읽기 방식의 전환과 새로운 문해력'으로 해석됨을 대비하는지, 상관을 인과로 단정하지 않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글쓴이는 정보 과잉 시대에 걸러 주는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추천 기술의 폐기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추천의 기준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추천 기준을 조정하거나 추천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이 대신 선택하는 범위를 이용자가 다시 결정할 수 있을 때 편리함과 선택의 주체성이 함께 보장된다는 것이다.

예시 답안 632자 (공백 포함) · 제한 540~660자

채점 포인트	답안에 있어야 할 내용	배점
통념과 논지 구분	추천 = 편리함의 확대이지만 그것이 곧 선택의 자유 확대는 아니라는 논지를 첫머리에 제시	30
근거 ① 선택지 축소	자유로운 선택의 정의 → 추천이 가능성을 미리 좁힘 → 모르는 것은 고를 수 없음	25
근거 ② 선호의 고착·순환	취향은 낯선 것과의 만남으로 형성 → 비슷한 것만 반복 → 굳은 선호가 다시 자료가 되는 순환	25
절충적 제안	기술 폐기가 아니라 기준 공개와 이용자의 조정·차단 권한	20

감점 요인

- 마지막 문단(절충적 제안)을 빠뜨리고 '추천 기술은 해롭다'로 요약 — 논지 왜곡
- 음악 사례·진열대 비유를 그대로 옮겨 분량을 채움
- 요약에 '타당한 주장이다' 등 자기 평가를 덧붙임